

자 랑 스 런



안 전 인 제2호

한국통신 가좌전화국
신현명 과장

통신업계 안전의 버팀목

「사업장에서의 자율안전 및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신현명 과장이 오늘 소개하려는 안전인이다.

'79년도에 한국통신에 입사하여 95년부터 본부에서 57개 전화국의 안전 총괄관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안전업무에 종사한 신현명 과장은 지금 가좌전화국 전력기술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평소 안전에 대해서 『나 혼자하는 안전은 근본적인 안전이 될 수 없고, 모두가 함께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었을 때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경영자의 관심을 강조하였다.

지난 2001년도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을 통한 산업 재해 감소에 관한 연구"에서도 평소 신과장의 안전에 관한 의지를 알 수 있다.

최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안전인의 위상은 MF 이후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안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규제완화시 항상 거론되고 완화되는 것이 안전분야라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신과장은 규제완화와 경기침체는 별개라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틈새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므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안전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기술직, 건설기술직 등은 민간단체에서 전산화를 통한 인력관리,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안전인의 인력은 관(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선임토록 되어있는 안전관리자가 이증으로 선임되는 문제점에 대해 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내에서 역사가 깊고, 경험이 풍부한 안전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철저한 인력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곧 안전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우리나라의 안전을 선진수준 이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업계의 자율안전 정착을 정량적으로 65점이라고 생각하는 신과장은 안전관리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강북전화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때가 되면 본부에서 한국통신의 안전수준을 레벨업시키고 싶다고 한다.

아울러 침체된 안전인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 등의 외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경쟁시대에 돌입한 21세기에서는 안전인 스스로 지식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법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인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인다.



안전인의 위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